

SK바사 “원활한 백신개발·공급 위한 국경없는 지원 필요”

안재용 사장, ‘백신 공급 불평등’ 제언
지역거점형백신허브 비전 달성 제시해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 진행
불균형 해소 위해 플랫폼 기술 이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보건총회 기간 글로벌 공중보건 리더들이 모여 공평한 글로벌 백신 공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민간기업 대표 패널로 초청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자리에서 원활한 백신 개발 및 공급을 위한 국경 없는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지역 거점형 백신제조협력체(RVMC)’ 행사에 패널로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23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다.

‘국가 및 지역 보건 안보: mRNA부터 지속가능한 지역거점형 제조 프레임워크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범미보건기구(PA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아프

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등 글로벌 공중보건 비영리기구 대표 및 남아공 보건부장관, 싱가포르 보건부장관 등 각 국가별 보건정책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사진)은 회사의 핵심 성장 전략인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RVMC의 비전 달성을 위한 보완 사항 및 선결 조건을 제안했다.

안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과 글로벌 백신 불평등 문제를 경험하면서 ‘지역거점형 백신 허브’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게 됐다”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는 SK바

이오사이언스의 신사업 전략의 하나로, 백신 연구·개발·생산 역량을 해외 정부 및 파트너사에 이전해 각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 사장은 “백신 제조시설이 없는 지역 중 인접한 나라들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곳, 즉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된다”며 “글로벌 백신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들의 비전에 맞게 백신 생산의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조역량, 공정개발 플랫폼, 기술력과 전문성을 모두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RVMC의 성공적인 비전 실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역거점의 명확한 정의 합의 및 적합한 허브 국가 선정 ▲지역거점 차원의 통합된 규제 시스템 구축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선제적인 자금지원 프레임워크 및 선구매 시스템 확보 ▲데이터 기반 글로벌 공급체인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의에 참석한 글로벌 공중보건 리더들은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거점형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역량 있는 기업들이 혁신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돌돌 말아쓰는 ‘롤러블’ OLED 선배

삼성D, 美 디스플레이 위크 참가
세계 최초 ‘센서OLED’ 공개도
화면 전체 지문인식 혈압 측정까지



삼성디스플레이가 소개한 롤러블 플렉스.

삼성디스플레이가 더 새로운 혁신 디스플레이 폼팩터를 내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3일(현지시간) 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디스플레이 위크 2023’에 참가해 차세대 제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기간 차세대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다. 세계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전문 행사로 전시회와 심포지엄 등이 열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노트북 휴대성을 크게 끌어올릴 롤러블 플렉스와 함께 지문과 혈압 센서를 패널에 통합한 센서 OLED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미래 기술을 소개하며 기술력을 뽐냈다.

롤러블 플렉스는 말아 쓰는 디스플레이다. 세로 길이를 49mm에서 254.4mm까지 5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종전에

이’는 OLED 소자 증착 과정에서 광센서를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센서를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 인식 영역을 사용자가 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빛이 손가락 혈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사되는 원리를 활용해 터치만으로 심박수와 혈압 등 건강 상태까지 측정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사람의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양 팔의 혈압을 모두 재야 한다”며 “센서 OLED 디스플레이는 양 손의 손가락을 동시에 센싱할 수 있어 기존 웨어러블 기기보다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팎으로 마음대로 접는 ‘플렉스 인앤아웃’도 선보였다. 자유롭게 접을 수 있어 더 새로운 폴더블폰 가능성을 높였다. 외부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어 더 얇고 작게 만들 수도 있다.

아울러 폴더블과 슬라이더를 결합한 ‘플렉스 하이브리드’와 13인치에서 17인치로 늘어나는 ‘슬라이더 플렉스 솔로’도 함께 내놨다.

/김재용 기자 juk@

폴더블이나 슬라이더보다도 2배 가까이 확장성을 높였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들고 다니기 힘든 대형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롤러블로 구현해 휴대성을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OLED 디스플레이가 지문 인식과 심혈관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도 있게 됐다. 신기술 ‘센서 OLED 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릴레이 할인 프로모션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 U+, ‘U+비즈마켓’ 솔루션 릴레이 할인

‘모두싸인’ 등 협업 단독 특가 제공

LG유플러스는 기업 솔루션 통합 판매 포털 ‘U+비즈마켓’에 입점해 있는 분야별 1등 솔루션을 특가로 제공하는 릴레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비즈마켓은 현재까지 60여 개의 제휴사 솔루션 라인업을 구축, 기업고객이 손쉽게 문의하고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비즈마켓은 솔루션 범위를 업무용 솔루션 외에도 임직원 복지·자기개발 등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 고객들이 각자의 경영 환경에 꼭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기회가 필요

하다고 판단, 이번 릴레이 특가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LG유플러스는 전자계약 서비스, P2P 금융 플랫폼 등 각 솔루션 분야의 1위 사업자와 협업해 단독 특가를 제공, 기업 고객이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비용 부담 없이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의 첫 시작으로 LG유플러스는 국내 1위 전자계약 서비스업체 ‘모두싸인’과 프로모션을 최근 시작했다. 모두싸인은 계약 이해관계자들이 이메일·카카오톡을 통해 서류를 주고 받으며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보관·관리까지 가능한 올인원 솔루션이다.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약 22만 개에 달하는 기업이 모두싸인을 통해 계약 프로세스를 5분 만에 처리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 1주년... 참여기업 10배 늘어

기업들 ‘친환경 경영’·‘혁신성장’ 우선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가입 76개사는 현재 10배 늘어난 756개사로 확대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가 출범한 지 1년만에 참여 기업이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업가정신이란 기업이 쌓아온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발전을 이끈다는 것이 핵심 비전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은 다함께 지난해 5월 선포식 자리에서 ‘기업선언문’에 서명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해 적극 알려지게 됐다.

2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출범 당시

신기업가정신 실천을 위한 기업선언문은 ▲혁신·성장 ▲윤리경영 ▲조직문화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발전 등 5가지 실천 명제를 두고 있다.

지역 경제계의 참여가 늘며 전국적인 확산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1년간 지역 경제계 중심으로 20여차례의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이 개최됐고, 이를 통해 전국 상공회의소의 절반 가까운 33개의 지역상회가 이 활동에 동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RT 멤버 167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경영과정에 사회적 활동을 반영할 것인지 질문에 ‘기업선언문에 포함된 5가지 실천 명제의 전 분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신기업가정신 실천을 위한 기업선언문은 ▲혁신·성장 ▲윤리경영 ▲조직문화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발전 등 5가지 실천 명제를 두고 있다.

신기업가정신 실천을 위한 기업활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기업선언문은 기업의 혁신·성장, 윤리경영, 조직문화,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발전 등 5가지 실천명제를 두고 있다. 대기업들은 친환경 경영을 첫 순위(80%)로 꼽았으며 혁신/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서도 73.3%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견·중소기업 역시 모든 분야에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이 중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다(74.4%).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기업들의 사회적 참여,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기쁘다”며 “지구도 살리고 기업도 번영하는 환경경영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CJ올리브네트웍스, 지역 청년 창작자 키운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추진

CJ올리브네트웍스가 청년 창작자의 로컬 아이디어 비즈니스화를 돕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Local Pioneer School)’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청년친화형 ESG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리모트 인턴십(Remote Internship)이

후 선보이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이번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은 로컬 콘텐츠 전문 기업 ‘어반플레이’와 함께 운영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취·창업 지원모델을 제시, 로코노미(Loconomy)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을 기획했다.

/최빛나 기자